

‘佛’, ‘魔’字 관련 중국어 어휘와 불교문화 小考*

김 순 진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강사, 주저자)

한 용 수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교수, 교신저자)

◆ 국문초록

불교가 중국에 전파되면서 중국인들은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 불교경전을 번역했고 이런 과정에서 중국에는 많은 새로운 불교어휘들이 세속화 되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인도의 범어와 중국어의 융합일 뿐만 아니라 인도의 불교문화와 중국문화가 결합되어 독특한 중국의 불교문화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언어와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오늘날 중국의 불교어휘에 큰 영향을 주었다.

본문에서는 불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佛’, ‘魔’ 관련 어휘를 중국어에서의 의미와 불교에서의 의미 분석을 통하여 이런 어휘 속에는 많은 불교문화가 스며있고 깊은 불교 교리를 담고 있으며, 역으로 이런 불교문화와 교리는 어휘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여 표현의 효과를 향상시켜 주었다. 또한 이런 분석은 어휘의 유래와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불교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코퍼스 자료 분석을 통하여 ‘佛’, ‘魔’와 관련된 어휘의 현대와 고대중국어에서의 활용빈도를 산출하고 그 원인을 제시하였으며 언어분석으로 공기성이 가장 활발한 어휘를 파악함으로써 중국인들의 생활 습성 및 그 사유방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주제어 : 佛, 魔, 중국어어휘, 불교문화, 코퍼스, 언어분석

* 본고는 2018년 11월 24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에서 개최된 제43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佛’, ‘魔’ 관련 중국어 어휘와 불교문화 小考」란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I. 머리말

인도의 불교는 기원전 3세기에 주변 국가로 전파되었으며 세계적인 종교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대략 기원전 2세기에 불교는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통해 현재 중국의 신장지역으로 전파된 후 점차 전국으로 유입되어 민간으로 깊이 파고 들어갔다. 후한(後漢)초부터 당(唐)말까지 불교는 약 1000년에 걸쳐 중국에서 불교문화뿐만 아니라 언어생활에서도 일대 변혁을 가져오게 하였다. 불교경전이 중국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불교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 경전을 번역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으로 인하여 중국어에는 많은 새로운 불교 관련 어휘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佛光, 佛典, 佛事, 念佛, 借花獻佛, 魔鬼, 魔王, 魔女, 魔力, 魔兵, 僧人, 僧衣, 僧供, 僧納, 僧堂, 极乐世界, 人生如梦, 菩薩心腸¹⁾ 등등이다. 이런 어휘들은 점차 토착화되고 세속화 되면서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많은 어휘중에서 본문에서는 ‘佛’, ‘魔’字와 관련된 어휘를 선택하였다. 그것은 ‘佛’字는 불교를 이루는 중심어휘로서, 불교의 삼보(三寶)인 불법승(佛法僧)에서도 ‘佛’은 가장 중요하며 ‘佛’은 불교의 상징 일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상징이기도 하다. 불교에서는 그 어떤 신을 믿는다는 것보다 자신 스스로 ‘成佛(成佛)’하는 것이다. ‘成佛(成佛)’할 때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魔’字이다. ‘무마불성불(無魔不成佛)’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佛’字와 ‘魔’字는 불교에서 분리될 수 없는 두 개의 단어이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상반되는 하나의 통일체로서, 내가 각성하면 ‘成佛(成佛)’하고 내가 미혹되면 ‘성마(成魔)’하는 것이다. ‘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해탈하여 자유를 얻게 하고 ‘魔’는 자유를 억제하고 사람들의 사상을 속박하는 것으로 불교에서는 반대되는 의미를 지닌다. 본문에서는 ‘佛’, ‘魔’字와 관련된 어휘를 중국어와 불교에서의 의미 및 문화를 살펴본다.

지금까지 불교어휘와 관련하여 비교적 많은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재양(2000)은 불교어의 유래, 혹은 어원을 연구했으며, 朱京之(2002)는 고대중국어 어휘의 발전에 대한 불교의 영향을

1) 중국어 어휘와 중국인명, 중국도서명은 중국어 간체자로 표기하고 기타 한글의 한문은 번체자로 표기한다.

연구했고, 이정일(2002)은 국어 어휘 속에서 불교 용어를 찾아 본래의 의미와 파생된 의미를 연구하였으며, 정성임(2004)은 불교의 유입과 중국어 어휘의 변화를 연구하였고, 안정훈(2008)은 불교설화에서 나타나는 중국화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이경규(2008)는 남난사(納蘭詞)의 불교 영향과 특징을 연구했으며, 이황진(2015)은 한·중 속담에 사용된 ‘중’에 대한 호칭을 연구하였고, 2016년에는 한·중 속담에 나타난 ‘佛菩薩’에 대해서도 연구했으며, 이명아·한용수(2017)는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에 나타난 붓다와 불교 신도의 호칭어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문은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것과 차별화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불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佛’, ‘魔’字를 선택하여 이것과 관련된 어휘를 중국어와 불교에서의 의미를 분석하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불교문화를 고찰한다. 또한 코퍼스 자료와 언어분석을 통해 중국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佛’, ‘魔’ 관련 어휘를 사용하는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佛’, ‘魔’字 관련 어휘와 불교문화

소쉬르의 영향을 받은 언어학자들은 1924년에 ‘의미장이론(Semantic Field Theory)’을 제기하였다. 즉, 사물의 의미를 하나의 체계로 보고 그 의미는 의미 체계 안에서 존재하게 된다. 이런 어휘들은 동일한 의미의 특정 유형으로 하나의 의미장(Semantic Field)을 형성하며 이런 의미는 인근 어휘들의 관계망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²⁾ 이 이론에 의하여 중국어의 어휘는 불교어휘장, 색채어휘장 등 많은 의미장을 형성한다. 불교 관련 어휘는 불교 경전에서 출현하는 불교 인물이나 사물의 명칭, 또는 불교의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의 어휘로, 두 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불교학 영역에서만 사용하여 그 의미가 더 이상 파생되지 않은 어휘로서, 예를 들면, 열반(涅槃)³⁾과 같은 어휘이고, 두 번째 부류는 이미

2) 王寅, 『语义理论与语言教学』, 上海外语教育出版社, 2014, 20쪽.

3) 불교 전문용어로 nirvāna(mibbāna)의 음역으로 적(寂)이나 적멸(寂滅)로 번역한다. 불교이전에는 이를 불사(不死)라고 하였다. 생사윤회를 초월한 이상의 상태를

세속화 되어 원래의 불교 의미보다는 파생된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어휘이다. 이런 불교어휘는 중국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며 매우 많은 비증을 차지하여 하나의 어휘장을 형성한다. 본문에서 연구하는 불교어휘는 두 번째 부류의 어휘이며 그 중에서도 불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佛’, ‘魔’⁴⁾字와 관련된 어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佛’字 관련 어휘와 불교문화

불교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佛’字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불교에서 ‘佛’의 어원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불교에서 ‘佛’은 산스크리트어 buddha의 음역으로 불타(佛陀)의 약칭이며 깨달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 붓다인 석가모니 혹은 모든 부처를 말한다. 불타(佛陀)의 설교가 바로 불교이며 따라서 ‘佛’은 불교를 나타내기도 한다. 중국어에서 ‘佛’⁵⁾字의 의미는 우주의 본성이나 참모습을 깨달은 사람, 혹은 궁극적인 진리를 깨달은 사람, 모든 번뇌를 없앤 사람이나 깨끗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지칭

가리킨다. 즉 탐욕, 진애, 우치 등의 일체의 번뇌가 없어진 상태로서, 일체 번뇌의 불이 꺼진 상태를 말하며,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를 말한다. 전치수편역, 『불교학의 기초지식』, 불교사상사, 1992, 20쪽 참조.

- 4) ‘佛’ ‘魔’字 관련 어휘는 ‘国家语委现代汉语语料库’에서 지명, 인명이나 불교와 관련 없는 것을 제거하고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것을 채택하였고, 일부 어휘의 채택과 해석은 다음 자료를 참고한다.

孙维张, 『佛源语词典』, 语文出版社, 2007.

李明权, 『佛学典故汇释』, 浙江古典出版社, 1990.

夏征农, 『辞海语词分册(上·中·下)』, 上海辞书出版社, 2010.

康寔镇外三人, 『中韩辞典』,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5.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 商务印书馆, 2012.

‘国家语委现代汉语语料库’는 현대와 고대중국어로 나누며 현대중국어 글자수는 19,455,328字, 어휘는 12,842,116개이며, 고대중국어의 글자수는 70,000,000字로 『四库全书』 대부분 자료가 포함된다.

- 5) 중국어에서 佛의 자원(字源)은 형성자이고 亻은 사람의 의미를 따르며 弗은 소리를 나타낸다. 佛은 다음자(多音字)로서 첫 번째 발음은 佛(fú)이고 ‘잘 보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예를 들면, 仿佛(마치...와 같다)이며, 두 번째 발음은 佛(fó)이며 佛陀의 약칭으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자를 지칭한다. 杨柳, 『说文解字』, 华侨出版社, 2011, 489쪽. 본문에서는 두 번째 발음인 佛(fó)의 의미로 연구한다.

하기도 하며, 때로는 진리나 우주 자체를 상징하기도 한다. 다음은 ‘佛’字 관련 어휘의 해석과 예문을 살펴본다.

〈표 1〉 ‘佛’字와 관련된 어휘와 예문

불교어휘 해석	예문
① 佛法: a) 불법, 불교의 교리, b) 불교도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불(佛)에 대한 법령.	我们现在上课.不是弘物佛法的时间 (우리는 지금 수업중이지, 포교하는 시간이 아니야!)
② 佛事: a) 불교의 덕을 발양시키는 모든 행사 b) ‘불교’, ‘불경’, ‘불상’ 등에 대한 약칭.	在公共汽车上佛事老人让座是一种良好的行为 (버스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좋은 행위이다)
③ 佛珠: (중이 지니는)염주	老虎挂佛珠-假充善人 (악한 사람이 선한 척함을 이르는 말)
④ 求佛: 부처에게 빌다.	她痛苦流涕拜神求佛 (그녀는 비통하게 울면서 손이야 발이야 빌었다)
⑤ 佛跳墙: 불도장(요리명)	佛跳墙是代表福建省的美味佳肴 (불도장은 복건성을 대표하는 맛있는 요리이다)
⑥ 佛眼相看: 부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의미로, 호의를 갖고 대하거나 너그럽게 보아준다.	你若和我好意, 我也佛眼相看 (네가 잘 대해주면 나도 선의로 대하겠다.)
⑦ 见性成佛: 자기 본래의 성품인 자성을 깨달아 부처가 되다.	见性成佛, 对一般人来说是很难做到的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⑧ 佛头着粪: 부처 머리에 똥칠하다. 남을 모독하다.	她有佛祖庇佑, 谁敢去佛头着粪 (그녀는 부처님의 가호를 받고 있는데 누가 감히 모욕할 수 있겠어?)
⑨ 佛面刮金: a) 불상의 안면에서 금을 긁어내다는 의미로 재물갈취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 b) 일처리를 할 때 융통성 없이 끊고 맺어 여유가 없음을 비유함.	不是我们争嘴, 堪恨你这厮们无道理, 佛面上去刮金 (내가 논쟁하고 싶지는 않지만 너희 사내중들은 어찌할 수가 없어, 불상의 안면에서 금을 긁어내다니)
⑩ 佛口蛇心: a) 겉은 보살 같으나 속은 독사 같다. b) 입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자비를 늘어놓으나 뱃속은 겉다(음흉하다)	他这个人佛口蛇心, 你要小心点儿 (그 사람은 음흉하니까 너 조심하라)

예문 ①의 佛法은 범어로 Buddhism dharma/dharma이고 약 2500년 전에 인도불교에 의해 만들어졌다. 佛法은 불교의 진리를 일컫는 것으로, 그 내용이 아주 풍부한데, 예를 들면, 사성제(四聖諦)⁶⁾ 등이 있다. 예문 <我们现在上课.不是弘扬佛法的时间>에서 ‘佛法’는 불교를 홍보하거나 널리 알리는 의미로 사용하여 ‘포교하지 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예문 ②의 佛事는 佛法에 의해서 수행되는 행사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공불, 독송, 염불, 기도 등이 포함되며 이것은 송대부터 시작되었다. 송대에 일본과 고려 등 나라에 사신을 보내 산에 올라가서 법사를 거행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명대 만력(萬曆)연간에 복진, 온주(溫州), 명주(明州) 등 지역의 신도들을 불타산(佛陀山)⁷⁾에 올라가서 법사(法事)를 보게 했다. 청말의 법문행사가 성행한 것을 소개한 민국 38년(1949년) 2월 21일의 <定海民報>에는 “심가문(沈家門)의 어민들은 매년 봄장마 때 불타산에서 불사를 거행했는데 그 수가 많아져서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이와 같이 불사를 거행하는 행사는 송대에서 시작하여 명대를 거쳐 청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행되어 왔다.

예문 ③의 佛珠⁸⁾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있다. 하나의 끈으로 염주 알을 꿰맨 것은 보살의 여러 가지 공덕을 말하는 것이고, 가장 큰 알은 아미타불의 만수무강을 의미한다. 염주는 비록 꿰맨 것이지만 절단할 수도 있다는

6) 사성제(四聖諦)는 네 가지 진리라는 뜻으로, 첫째, 세계는 괴로움에 차 있어서 인생은 모든 괴로움의 경험이라는 진리, 둘째, 그 고(苦)에는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번뇌(煩惱)라는 진리, 셋째, 이 고의 원인이 절멸(絶滅)된 경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반(涅槃)의 진리이다. 넷째, 번뇌를 절멸로 이끄는 도가 있는데 그것은 팔정도(八正道), 혹은 중도(中道)라는 진리이다. 이런 불교의 진리들은 모두 佛法에 포함된다. 우정상, 『교양불교』, 佛光出版部, 1987, 88쪽.

7) 남암사(南岩寺), 혹은 남암불굴(南岩佛窟)라고도 하는데 강서(江西) 익양(弋陽)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의 중요한 명승고적 중의 하나이다. 동굴의 너비는 70m이고 높이는 30m이며 길이는 30m로서 약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세계 과학자와 종교 연구가에 의하면 이 동굴은 자연 동굴을 개착하여 만든 중국에서 가장 큰 불교석굴이라고 한다. 方立天, 『中国佛教与传统文化』, 长春出版社, 2007, 134쪽 참조.

8) 염주 알은 보살나무 열매, 대리석, 산호, 마노, 옥, 수정 등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 중 보리나무 열매는 석가모니가 성불한 지역의 나무로써 금강나무라고도 하며 범어로는 Rudraaksa 라고 한다.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이 열매를 꿰매서 염불, 염법(念法), 염승(念僧)할 때 사용하게 했기에 금강보리자(金剛菩提子)라고도 한다. 刘志贤 외 2인, 『佛教趣闻』, 华文出版社, 2006, 232쪽 참조.

것은 보살의 특별한 공덕이 우리의 많은 번뇌를 제거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염주를 세며 염불을 하는 것은 말고빼와도 같아서 미친 듯이 달리는 사람의 마음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불타, 달마, 승가의 이름을 부르며 염불을 하면 심신이 집중되고 잡념을 잊게 하며 선정할 수 있어서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다.⁹⁾ 그러므로 염주는 수행자들이 필수로 준비하는 법물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어에서는 예문 <老虎挂佛珠-假充善人>에서와 같이 ‘挂佛珠’는 ‘착한 사람’을 상징하여 사람을 비웃거나 풍자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예문 ④의 求佛은 중국어에서 ‘부처에게 빌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불교에서의 求佛은 부처에게 건강이나 재물, 평안을 보우해줄 것을 비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 우리를 인도하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원함을 의미한다. 즉, 求佛은 내적으로 깊이 성찰하여 청정한 자성(自性)을 회복하고 스스로 불성(佛性)을 발견해내라는 의미이다. 현재 중국어에서는 예문 <她痛苦流涕拜神求佛>에서와 같이 힘든 일이 생기면 신이나 부처를 찾게 되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예문 ⑤의 佛跳墙은 복건성을 대표하는 요리 명칭으로, 닭, 오리와 여러 가지 해산물을 함께 끓여서 만든 것이며 약 2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요리 맛이 뛰어나서 스님이 그 냄새에 반하여 선정(禪定)을 포기하고 담장을 넘어왔다고 하여 佛跳墙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 예문 ⑥의 佛眼相看은 전설 중에 여래(如來)는 불도(佛道)의 증인으로써 민간에서 불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를 불조(佛祖), 혹은 여래불조(如來佛祖)라고 불렀다. 여래는 중생(衆生)을 볼 때 佛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여래가 중생을 바라보다(佛眼望众生)”을 4자로 줄이면 佛眼相看으로 쓸 수 있으며 ‘부처의 눈으로 바라보다’는 의미로 쓰인다. 예문 ⑦의 见性成佛은 선종의 2대조 혜가(慧可)와 선종의 개조(開祖) 달마와의 문답에서 유래하였다. 혜가가 달마에게 불도를 얻는 법을 묻자 달마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므로 마음을 보라고 대답했다. 자기 마음이 참 부처인 줄 모르고 밖에서 도를 구한다면 아무리 경전을 쓰고 외우며 많은 수행을 하더라도 힘만 들이고 얻는 것은 없다고 했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예문 ⑦과 같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9) 刘志贤 외 2인, 앞의 책, 231-234쪽 참조.

예문 ⑧의 佛头着粪은 『景德傳燈錄·卷七』¹⁰⁾의 如會禪師(744-823)¹¹⁾에 실려 있다. 여기서 如會禪師는 ‘새는 피에 굶주린 독수리 앞에서는 두려워서 피하기 바쁘고, 그의 머리에 배설은 감히 생각도 못하지만 불성으로 자애롭고 모든 중생을 용서하며, 여타 모든 것을 너그럽게 봐주는 부처는 새의 장난도 봐줄 수 있기에, 새는 바로 이점을 알고 부처의 머리에 배설을 했으므로 이런 새야말로 불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여 대자연의 진여불성(眞如佛性) 표현 중의 하나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다. 그 후 선가에서는 佛头着粪이란 어휘로 사용하여 본질은 선하나 부가적인 것은 아름답지 않을 때 사용하였는데, 현재는 세속화 되어 좋은 것에 좋지 않은 것이 더해져 손상되거나 모욕됨을 이르는 말로써 예문 <她有佛祖庇佑, 誰敢去佛头着粪>에서와 같이 풍자나 비꼬는 말에도 사용한다. 예문 ⑨의 佛面刮金¹²⁾은 불상의 안면(顔面)에서 금을 긁어내다는 뜻인데, 이후에 파생되어 돈벌이에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을 ‘佛面刮金’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현실적이고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예문 ⑩의 佛口蛇心은 입은 부처처럼 좋은 말을 하나 마음은 독사와 같다는 의미이다. 문학작품에

10) 『景德傳燈錄』는 『祖堂集』, 『寶林傳』의 기초위에서 자료를 더 수집하고 가공하여 정형화한 서적이다. ‘景德’은 송진종(宋眞宗)의 연호이고 이 책이 만들어진 시대이며 선종(禪宗)의 불법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전등(傳燈)으로 비유하여 ‘전등록(傳燈錄)’이라고 했다. 이 책은 선종의 전법(傳法)을 52세대에 걸쳐 1,701명의 질의응답의 어구로 되어 있다. 문장이 신선하고 생동감이 있어서 승속(僧俗)의 주목을 받았다. 李正覺, 『佛教百科全書』, 陝西師範大學出版社, 2007, 491-492쪽 참조.

11) 崔相公入寺, 見鳥雀于佛头上放糞, 乃問師曰: “鳥雀還有佛性也無?” 師曰: “有.” 崔曰: “為什麼向佛 头上放糞?” 師曰: “是伊為什麼不向鷄子头上放?” (崔相公은 어느날 湖南東寺에서 새가 불상의 머리 위에 배설한 것을 보고 如會에게 ‘새도 불성이 있냐’고 묻자 ‘있다’고 대답했다. ‘그럼 왜 부처님의 머리위에 배설하냐’고 묻자 如會는 ‘새는 왜 독수리의 머리위에 배설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12) 불상의 안면(顔面)에서 금을 긁는 사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 『太平廣記』의 기록에 의하면 唐貞觀 20년에 唐兵이 冢子(龜茲)를 점령하고 薛孤訓은 사람들을 모아 冢子(龜茲)의 사찰 안에 있는 불상의 안면에서 금을 긁어갔다고 한다. 약 10여 일이 지난 후 그는 눈썹이 모두 없어지는 이상한 병에 걸렸는데, 이에 대해 사람들은 신이 그에 대한 복수라고 했다. 겁을 먹은 薛孤訓은 그 사찰에 가서 회개하고 긁어온 황금을 모두 불사를 보는데 기부하자 그의 눈썹은 다시 회생했다고 한다.

서도 흔히 쓰이는데, 예를 들면, 如明·王玉峰的『焚香记·构窟』에서 “王魁, 너는 아주 독하고도 음흉한 놈이야, 내가 황천에 가서도 반드시 너의 나쁜 영혼을 뽑아 버릴거야”¹³⁾라고 적고 있다. 이 작품에서와 같이 佛口蛇心과 蛇心佛口는 어순은 바뀌었지만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佛’과 관련된 어휘의 분석에서 ‘佛’은 불교와의 깊은 인연으로 많은 불교문화를 담고 있다. 중국어에서는 대체로 불교의 의미를 따르고는 있지만 세속화되고 파생된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나 가끔은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2. ‘魔’字 관련 어휘와 불교문화

불교에서 魔¹⁴⁾는 산스크리트어 Mara의 음역이며 역경(譯經)의 과정에서 중국어의 磨, 혹은 摩를 차용하여 사용했는데 양무제(梁武帝)때 魔로 磨, 혹은 摩를 대체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¹⁵⁾ 불교에서 魔는 사람을 괴롭히는 악마로서 중국어의 鬼의 의미와 비슷하여 사람들은 魔와 鬼를 같이 써서 魔鬼라고 하였으며, 그 이후로 魔는 중국에서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¹⁶⁾ 예를 들면, 妖魔, 魔力, 魔术, 入魔 등이 있다. 불교에서 魔는 깊은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데, 즉 깨달음의 여정에서 유혹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숨어있는 번뇌라고 한다. 고타마 싯다르타(Gautama Siddhārtha)가 보리수 밑에 앉아 선정(禪定)에 들어갔을 때 깨달음을 방해하려고 온갖 魔鬼의 군상들이 밀어닥친다. 魔가 그의 귀에 대고

13) 王魁, 你恶狠狠蛇心佛口, 我便到黄泉, 也须把你这歹魂儿勾。

14) 중국어에서 ‘魔’는 형성자이고 鬼의 의미를 따르고 麻의 소리를 따른다. ‘魔’의 본 의미는 악마라 는 뜻으로 마라(魔羅:악마의 그물)의 약칭이며, 때로는 악귀(惡鬼)나 괴물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후에 파생되어 사악한 사람이나 세력을 지칭하기도 한다. 杨柳, 『说文解字』, 华侨出版社, 2011, 489쪽.

15) 각주 14의『说文解字』에서 이미 ‘魔’에 대한 해석이 있는 것을 보면 ‘魔’자는 이미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였다. 원래 범어 ‘魔羅’의 음역으로 ‘磨’나 ‘摩’자를 사용했는데 양무제(梁武帝)때부터 ‘魔’가 사람의 생명을 헤치고 마음을 교란하는 의미에 더 적합하다고 여겨 ‘魔’자로 ‘磨’나 ‘摩’자를 대체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朱瑞玖, 『佛学成语』, 汉语大词典出版社, 2006, 8쪽 참조.

16) 李明龙, 『虚云老和尚十难十八奇』,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4, 88쪽.

“세계 통일의 대 제상으로 해주겠다”고 속삭이고 마왕(魔王)의 세 딸이 반나체의 모습으로 온갖 아양을 부리며 유혹한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세속적인 권력의 욕망과 뿌리 깊은 애욕에서 벗어나야 함을 의미한다. 불타가 깨달음을 열 때 魔鬼는 최대의 저항을 보인다. 그러므로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降魔成道’¹⁷⁾로 표현하고 있다. 싯다르타는 49일간의 魔鬼¹⁸⁾의 유혹에서 벗어나므로써 깨달음이 완성된다. 다음은 魔와 관련된 어휘를 살펴본다.

〈표 2〉 ‘魔’字와 관련된 어휘와 예문

어휘 해석	예문
① 心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마를 지칭한다.	不要让心魔阻碍你拥有大大梦想 (마음속의 악마가 당신이 큰 꿈을 갖는 것을 방해하게 해서는 안된다)
② 魔鬼: 악마, 마귀, 사악한 세력.	他像魔鬼一样凶恶. (그는 마귀처럼 흉악하다)
③ 魔力: 마력, 매력	这有奇特的魔力啊. (이것은 이상한 마력이 있어)
④ 魔掌: 마수, 흉악하고 음험한 손아귀	逃出魔掌(마수에서 벗어나다), 伸出魔掌. (마수를 뻗다.)
⑤ 魔障: 악마가 설치한 불도(佛道)의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 혹은 사악한 마음	阴影魔障(그렇지 않은 척 하면서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자극하려는 마음)
⑥ 自在天魔: 불교에서 魔王의 한 종류이다.	『自在天魔』是东方玄幻小说. (『自在天魔』는 동방의 판타지 소설이다)
⑦ 走火入魔: a) 잘못된 방식으로 도를 닦다가 사도에 빠지다. b) 지나치게 열중하거나 빠져있다.	他最近玩电脑游戏有些走火入魔了 (그는 요즘에 너무 게임에 빠져있는 것 같다)
⑧ 邪魔歪道: 비뚤어진 길, 정당하지 못한 길(방법)	他用邪魔歪道的方式得到别人的钱. (그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얻는다)

17) 악마를 물리치고 도의 경지에 이른다.

18) 불타에서 말하는 魔鬼는 ‘자신의 번뇌’라고도 볼 수 있으며 현대에서 말하는 ‘에고’라고도 볼 수 있다. 李明权, 『佛学典故汇释』, 浙江古籍出版社, 1990, 363쪽 참조.

어휘 해석	예문
⑨ 十魔九难: 연속으로 이어지는 고난을 비유하여 일컫는다.	生活中的十魔九难是人生的财富 (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유혹과 고난은 인생의 재산이다)
⑩ 道高一尺魔高一丈: 종교에서 수행자들에게 외부의 유혹을 경계하라는 의미인데, 이후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니 더욱 큰 곤란이 닥친다.	风浪是意料中的事, 所谓道高一尺魔高一丈! (풍랑은 예상했던것이야. 소위 ~이야)

예문 ①의 心魔란 사람의 마음에는 천사와 악마, 즉 선과 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악마를 불교에서는 心魔¹⁹⁾라고 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 증오심, 의심, 원망 등은 모두 心魔의 구체적인 현상으로 이것은 있다가도 사라지고 잠잠하다가 힘들 때는 불쑥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불씨는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기도 하고 잠식시키기도 하며 또한 경험과 수련을 깊이 쌓게도 한다. 흔히 말하는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자신이며 자신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心魔를 말하는 것이다. 어휘 魔鬼는 예문 ②의 <他像魔鬼一样凶恶>에서와 같이 중국어에서 이미 세속화되어 귀신이나 악마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예문 ③의 魔力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신기한 마법과 힘을 말하는 것으로, 가끔은 악마가 좋은 일의 역량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른 한 가지 의미는 유혹적인 힘, 혹은 매력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영화나 소설, 혹은 만화작품에서 마법사가 마법을 사용하는데 소모되는 에너지를 지칭하기도 한다. 예문 ③의 <这有奇特的魔力啊>에서 魔力도 매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魔의 원래의 부정적인 의미와는 다르게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예문 ④의 魔掌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어휘는 魔爪, 魔手 등이 있다. 魔와 결합된 掌, 爪, 手는 모두 손을 의미하는 것으로 흉악하거나 음흉한 손이란 뜻으로 사악한 세력이나 나쁜 사람들의

19) 기공(氣功)영역에서 心魔는 ‘환영(幻影)’을 말하는 것으로, 수행자들의 마음속의 내적인 기운과 우주의 기운이 공명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여러 가지 환영이 보일 수 있다. 이런 환영이 일어날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담하게 마음의 평정을 지키고 매우 정상적인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마음이 평정되고 유혹되지 않으면 환영은 자연적으로 사라진다. 李明权, 『佛学典故汇释』, 浙江古籍出版社, 1990, 362쪽, 참조.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한다. 예문 ⑤의 魔障은 불교에서 수행자들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악마들이 설치한 장애를 가리키는 것으로, 중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 의한 좌절과 시련을 의미하거나 사악한 마음을 의미하기도 하여, 가끔은 사람을 비웃거나 풍자할 때 사용한다. 예문 ⑤의 <陰影魔障>에서 魔障은 중국어에서 세속화되어 ‘비방이나 자극을 주는 악한 마음’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문 ⑥의 自在天魔는 범어로 *tisāna*로서 음역어는 이사나(伊沙那)이고 의역으로는 자재(自在)라는 의미가 있으며 밀종(密宗)에서는 제6천마왕(第六天魔王)이라고도 한다. 불교에서는 세계를 욕계, 색계(色界)와 무색계(無色界)의 3계(三界)로 나눌 수 있는데 제육천타화자재천(第六天他化自在天)은 욕계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고 한다. 이 魔王은 중생들이 3계(三界)에서 벗어나 제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싫어서 불타 및 수행자들의 깨달음을 방해한다고 한다.²⁰⁾ 석가모니가 성불할 때에도 사마(四魔:煩惱魔, 陰魔, 死魔, 自在天魔)의 저해를 받았다고 한다.²¹⁾

예문 ⑦의 走火入魔의 走火는 도가(道家)나 불가(佛家)에서 연단(鍊丹)을 이용하여 단전에 운기를 모으고 집중하면 열이 생기는데 이것을 ‘화(火)’라고 하며 이 ‘화’에 집중하여 의식으로 이 ‘화’를 임맥과 독맥을 통과시키고 심지어 ‘소우주’와 ‘대우주’를 돌게 한다. 그 과정에서 ‘화’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기혈(氣血)이 역류하여 신경이나 경락을 손상시켜 토혈, 반실불수, 심지어는 사망할 수도 있다. 入魔는 긴 시간의 정신적인 자아강화로 환영이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불교에서의 참선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고요히 마음을 바라보고 느끼며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므로 入魔현상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불교에서의 진정한 명상은 走火入魔 현상이 일어날 수 없으며 불교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념의 착오에서 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예문 <他最近玩电脑游戏有些走火入魔了>와 같이 어떤 일이나 혹은 게임에 빠져있을 때 많이 사용된다.

예문 ⑧의 邪魔歪道에서 邪魔는 ‘사마, 혹은 악마’라는 뜻이며 여기서 파생하여 ‘부당, 부정, 부도덕’의 의미가 있으며 때로는 ‘방해, 장애’의 의미로

20) 李正覺, 앞의 책, 106쪽 참조.

21) 刘志賢 외 2인, 앞의 책, 142-150쪽 참조.

도 사용된다. 歪道는 ‘사도, 혹은 비뚤어진 길’이란 의미로, 여기서 파생하여 ‘간계, 부정한 수단, 혹은 나쁜 생각’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부정적인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되어 ‘나쁜 길이나 정당하지 못한 길(방법)’이라는 의미를 더 강조하여 나타낸다. 예문 ⑨는 불교에서 十魔九難²²⁾은 석가모니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받은 열 가지 유혹과 아홉 가지 고난을 가리키는 것으로, 중국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유혹과 고난을 겪어야 함을 의미한다. ‘무마불성도(無魔不成道)’라는 말처럼 十魔九難을 이겨내야 성불(成佛)할 수 있는 것이다. 예문 ⑩의 道高一尺魔高一丈에서 ‘道’는 불가(佛家)에서 도가의 ‘道’를 격의(格義)하여 사용한 것으로, 수행자의 성과를 말한다. ‘魔’는 불교에서 심신을 교란하고 선행을 파괴하며 수행을 방해하는 모든 심리활동을 말한다. 전체적인 의미는 도행(道行)이 한자가 높아지면 魔障은 한 장[一丈]이 높아진다는 뜻으로 불교도들이 수행과정에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열심히 수행하여 성불하도록 일깨워주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

‘魔’는 불교에서 깨달음을 방해하는 우리 마음속의 번뇌로서 이와 관련된 어휘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때 ‘魔’의 저항을 받으므로 ‘魔’와 관련된 불교설화는 매우 많으며, 깊은 불교문화를 담고 있다. 현재 중국어에서는 ‘魔’의 의미가 세속화되어 ‘악한 마음’, ‘마귀’, 혹은 ‘고난’의 의미로 파생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다.

‘佛’, ‘魔’와 관련된 불교 어원의 어휘 분석을 통하여 불교문화의 전파는 중국의 고대 언어학과 중국어 어휘발전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중국어 어휘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였고 그 표현능력도 향상시켜 주었다. 역으로 풍부한 불교어원의 어휘는 불교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중국에서 불교문화의 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22) ‘十魔’는 六賊魔, 富魔, 貴魔, 六情魔, 恩愛魔, 難魔, 賢聖魔, 兵魔, 女樂魔, 色魔 등이 있고 ‘九難’에는 衣食逼迫, 尊長約束, 恩愛牽連, 名利綈絆, 灾禍橫生, 盲師約束, 议论差別, 立志不堅, 岁月蹉跎 등이 있다. 孙维张, 앞의 책, 228쪽, 참조.

Ⅲ. ‘佛’, ‘魔’字 관련 어휘의 활용과 언어분석

1. ‘佛’, ‘魔’字 관련 어휘의 코퍼스 언어학적 분석

코퍼스는 일정한 원칙에 의하여 수집된 자연 텍스트로, 언어 분석 및 기초가 되는 자료의 집합체로 볼 수 있다. 코퍼스언어학의 시작은 20세기 60년대 전후로 볼 수 있는데, 1961년에 시작해서 1964년에 구축된 Brown코퍼스를 코퍼스언어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Brown코퍼스는 언어 연구용으로 편찬된 최초의 컴퓨터 코퍼스이다.²³⁾ 언어 연구 및 언어교육영역에서 코퍼스를 사용한 분석방법 및 기술은 방법론적 의미에서 언어학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다.²⁴⁾ 본문의 분석에서는 복경대 말뭉치 자료²⁵⁾를 이용하여 ‘佛’, ‘魔’字와 관련된 어휘의 출현빈도를 검색하고 그 비율을 산출하여 분석한다.

〈표 3〉 ‘佛’, ‘魔’字 관련 어휘의 현대와 고대 중국어에서의 출현빈도 및 비율

어휘	현대 중국어	비율(%)	고대 중국어	비율(%)	합계	각 순위 26)
① 佛法	832	10.24%	7293	89.76%	8125	1위
② 佛事	272	13.22%	1786	86.78%	2058	2위
③ 佛珠	66	80.49%	16	19.51%	82	4위
④ 求佛	117	10.73%	973	89.27%	1090	3위
⑤ 佛跳墙	34	100%	0	0%	34	6위
⑥ 佛眼相看	3	15%	17	85%	20	7위
⑦ 见性成佛	30	44.78%	37	55.22%	67	5위
⑧ 佛头着粪	10	83.33%	2	16.67%	12	8위
⑨ 佛面刮金	0	0%	1	100%	1	10위
⑩ 佛口蛇心	2	20%	8	80%	10	9위
⑪ 心魔	17	25.37%	50	74.63%	67	6위
⑫ 魔鬼	2662	93.11%	197	6.89%	2859	1위
⑬ 魔力	1127	90.30%	121	9.70%	1248	2위

23) 文有美·姜柄圭, 「코퍼스를 활용한 중국어 유의어 분석 방법론 試探」, 『중국어 교육과연구』 제27호, 한국중국어교육학회, 2018, 85-86쪽 참조.

24) 장원재, 『코퍼스를 활용한 일본어연구와 일본어교육연구』, 한국문화사, 2014, 5쪽.

25) 北京大学中国语言学研究中心(CCL).

26) ‘佛’, ‘魔’字와 관련된 어휘의 종합 순위는 각각 그 어휘 내에서 순위를 매긴다.

어휘	현대 중국어	비율(%)	고대 중국어	비율(%)	합계	각 순위
⑭ 魔掌	234	98.32	4	1.68	238	4위
⑮ 魔障	54	25%	162	75%	216	5위
⑯ 自在天魔	0	0%	6	100%	6	8위
⑰ 走火入魔	250	100%	0	0%	250	3위
⑱ 邪魔歪道	9	100%	0	0%	9	7위
⑲ 十魔九难	1	100%	0	0%	1	10위
⑳ 道高一尺魔高一丈	3	75%	1	25%	4	9위

‘佛’, ‘魔’字와 관련된 어휘를 현대중국어와 고대중국어로 나누어서 출현 빈도 및 비율을 살펴보았는데, ‘佛’字와 ‘魔’字의 기본적인 의미로부터 알 수 있는바, ‘佛’字와 관련된 어휘는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魔’字와 관련된 어휘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지만 결코 모든 어휘가 그런 것은 아니다. 예문 ①의 佛法의 출현빈도는 8125번으로 1위이며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佛法이 ‘佛’字를 대표하는 단어로, ‘佛’字의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하며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현대와 고대중국어의 출현비율에서 고대의 출현비율이 7293번으로 89.76%를 차지하며 현대보다 훨씬 높는데, 이것은 고대에는 일상생활이 곧 종교이고 특히 경제가 가장 번창했던 당대(唐代)에는 불교가 가장 성행했기에 佛法의 집회가 매우 많았을 것이라 추측한다. 예문 ②의 佛事도 현대와 고대중국어의 출현빈도에서 고대가 1786번으로 86.78%이며 현대보다 훨씬 많은데 이것 역시 예문 ①과 같은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佛’字와 관련된 어휘에서 출현빈도가 1000 번이상인 어휘는 佛法과 佛事 뿐이다. 출현빈도가 3위인 예문 ④의 求佛도 예문 ①, ②와 같은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예문 ③의 佛珠는 고대보다 현대중국어에서 출현빈도가 높는데, 이것은 고대에서 佛珠는 옥이나 마노(瑪瑙) 등 비교적 진귀한 재료로 만들고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던 고대에는 가공 등 과정이 어려웠기에 불교 종사자나 귀족들만 착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대로 오면서 기술이 발달하고 원자재의 값이 저렴해지면서 불교 신도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佛珠를 사용하면서 어휘의 출현빈도도 높아졌을 것이라 추측한다. 예문 ⑤의 佛跳牆은 약 200년 전에 생긴 요리명이고 현대에 와서 그 요리가 유명해지면서 현대에서만 사용한 것으로 본다.

예문 ⑦의 見性成佛은 현대와 고대에서 출현빈도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고대나 현대의 사람들이 성불(成佛)하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있음을 의미한다. 예문 ⑧⑨⑩의 佛头着粪, 佛面刮金, 佛口蛇心은 ‘佛’의 원래의 긍정적인 의미와는 다르게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출현 빈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현대나 고대에서 모두 많이 사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魔’字와 관련된 어휘들의 출현빈도 및 비율을 살펴보면, 예문 ⑫의 魔鬼는 2859번으로 ‘魔’字와 관련된 어휘에서 출현빈도가 가장 높는데, 이것은 魔鬼라는 어휘가 ‘魔’字의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하는 것으로, ‘魔’字를 대표하는 어휘라고 볼 수 있다. 현대와 고대중국어의 출현비율에서 현대가 2662번으로 93.11%를 차지하여 독보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魔’란 글자가 남북조시기에 인도의 불경을 번역하면서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여 서서히 민중들에게 보급되면서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鬼’와 결합하여 오늘날 ‘魔鬼’란 어휘로 사용하므로 현대에서 훨씬 많이 사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출현빈도가 2위인 예문 ⑬의 魔力은 부정적 의미를 가진 ‘魔’字와 중성적 의미를 가진 힘을 나타내는 ‘力’과 결합하여 ‘魔’의 부정적 의미와는 다르게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며 현대에서의 사용이 1127번으로 90.30%를 차지하여 독보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마력’은 중성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사람을 유혹하는 힘의 의미를 가진 ‘매력’으로 파생되면서 현대중국어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하며 따라서 현대의 사용빈도도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는 魅力이 있다. 예문 ⑪의 心魔와 예문 ⑮의 魔障은 현대보다 고대에서 출현한 빈도가 대략 70%로 더 많이 사용했는데 이것은 대체로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역시 종교가 생활화 되어 있던 고대에서 더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예문 ⑭의 魔掌과 예문 ⑰의 走火入魔는 현대에서 독보적으로 많이 사용했는데, 이것은 이런 어휘의 의미가 현대로 오면서 다른 의미로 파생되어 사용했기 때문이다. 魔掌의 의미는 ‘흉악하고 음험한 손아귀’로 파생되어 사용하고, 走火入魔는 원래 도교나 불교에서 사용했던 용어인데 현대로 오면서 ‘지나치게 열중하다, 일이나 게임 등에 푹 빠지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예문 ⑯⑰⑱⑳의 自在天魔, 邪魔歪道, 十魔九难, 道高一尺魔高一丈은 종합출현빈도가 10번미만으로 고대나 현대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佛’, ‘魔’와 관련된 어휘의 코퍼스 자료 분석을 통하여 佛法, 佛事, 求佛, 魔鬼, 魔力는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며 현대와 고대중국어의 사용비율에서 佛法, 佛事는 고대에서, 魔鬼, 魔力는 현대에서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佛’, ‘魔’字의 연어 분석

연어(collocation)는 어떤 단어들의 습관적인 사용위치에 대한 서술로서 단어의 구성 성분의 의미가 어휘 연속체이고 구성요소가 잘 분리되지 않는 형식을 말한다. 즉, 연어는 통사·의미론적으로 관련을 갖고 있는 어휘가 동일한 문맥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어휘의 단순 공기관계라고 볼 수 있다.²⁷⁾ 연어의 결합에는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결합관계가 있다. 본문에서는 ‘佛’, ‘魔’字와 관련된 어휘의 분석으로서, ‘佛’, ‘魔’字는 명사이므로 주요하게 명사와의 결합관계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佛’, ‘魔’字를 연어핵으로 하고 이와 결합되는 단어를 연어변으로 하여 표를 만들어 분석한다.

〈표 4〉 ‘佛’, ‘魔’와 관련된 연어

연어핵	의미	연어변
佛	① 불교, 불법, 교리, 혹은 법력	-事, -珠, -法
	② 부처, 혹은 스님	求-, -跳牆, -眼相看, 见性成-, -头着粪, -面刮金, -口蛇心
魔	① 악마, 마귀, 사악한 세력	-鬼, -掌
	② 마력, 매력	-力, 走火入-
	③ 불교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	-障, 自在天, 十-九难

‘佛’字를 연어핵으로 하는 어휘 중에서 공기성이 가장 활발한 어휘를 순서대로 배열하면 -法, -事, 求- 이며 연어핵 ‘佛’字는 -珠, -跳牆, -眼相看, 见

27) 원극연, 「한·중 연어 대조 연구를 위한 토대 구축 연구」, 『한어문교육』 제30집,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4, 140-141쪽 참조.

性成-, -头着粪, -面刮金, -口蛇心 등 많은 어휘와 결합하여 언어 관계를 형성한다. ‘魔’字를 언어핵으로 하는 어휘 중에서 공기성이 가장 활발한 어휘는 -鬼와 -力を 들 수 있으며 언어핵 ‘魔’字는 -掌, -障, 走火入-, 自在天-, 十九难 등 많은 어휘와 결합하여 언어 관계를 형성한다.

IV. 맺는 말

불교가 중국에 전파되면서 중국인들은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 불교경전을 번역했고 이런 과정에서 중국에는 많은 새로운 불교관련 어휘들이 세속화되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인도의 범어와 중국어의 융합일 뿐만 아니라 인도의 불교문화가 중국문화와 결합되어 독특한 중국의 불교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언어와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오늘날 중국의 불교관련 어휘에 큰 영향을 주었다. 본문에서는 ‘佛’, ‘魔’와 관련된 어휘를 분석하고 이런 어휘들과 불교문화와의 연관성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이런 어휘들의 유래에는 많은 불교문화가 스며있으며 깊은 불교지식을 담고 있어서 어휘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며 표현의 효과를 향상시켜 주었다. 현재 이런 어휘들은 중국어의 어휘로 편입되어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어의 여러 영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코퍼스 자료와 구체적인 통계분석을 통하여 佛法, 佛事, 求佛, 魔鬼, 魔力 등 어휘는 활용 빈도가 가장 높으며 佛法, 佛事는 고대에서 훨씬 많이 사용했고 魔鬼, 魔力은 현대에서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다. 언어 분석을 통하여 佛法, 佛事, 求佛, 魔鬼, 魔力은 공기성이 가장 활발하고 다른 단어와도 공기관계를 맺고 있다. ‘佛’, ‘魔’字와 관련된 어휘와 불교문화의 분석을 통하여 이런 어휘의 유래와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불교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코퍼스 자료 및 통계분석으로 현대와 고대중국어에서의 활용빈도와 비율 및 그 원인을 제시하고 언어분석으로 공기성이 가장 활발한 어휘를 파악함으로써 중국인들의 언어생활습관 및 사유방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어휘와 문화의 융합연구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강병규, 「말뭉치에 기초한 중국어 연어연구 방법고찰」, 『중국어문학논집』 41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06.
- 金琮植, 「佛典漢語의 複音節詞와 문법연구」, 中央僧伽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4.
- 文有美·姜柄圭, 「코퍼스를 활용한 중국어 유의어 분석 방법론 試探」, 『중국어교육과연구』 27집, 한국중국어교육학회, 2018.
- 박재양, 「日常語 속의 佛敎 由來語 연구」, 『어원연구』, 한국어원학회, 2000.
- 안정훈, 「불교설화의 중국화에 관한 고찰」, 『중국어문학논문집』 58집, 중국어문학회, 2009.
- 우정상, 『교양불교』, 佛光出版部, 1987.
- 원극연, 「한·중 연어 대조 연구를 위한 토대 구축 연구」, 『한어문교육』 30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4.
- 이경규, 「納蘭詞의 불교 영향과 특징 연구」, 『중국어문학논문』 53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08.
- 이명아·한용수,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에 나타난 불교 호칭어 분석 -붓다와 불교 신도호칭어를 중심으로-」, 『中國語文論叢』, 중국어문연구회, 2017.
- 이정일, 「국어 어휘 속의 불교 용어」, 『불교어문논집』 7집, 한국불교어문학회, 2002.
- 이황진, 「중[僧]관련 한·중 속담 비교 연구」, 『열상고전연구』 43집, 열상고전연구회, 2015.
- 이황진, 「한·중 속담에 나타난 불보살」, 『열상고전연구』 49집, 열상고전연구회, 2016.
- 장원재, 『코퍼스를 활용한 일본어연구와 일본어교육연구』, 한국문화사, 2014.
- 전치수편역, 『불교학의 기초지식』, 불교사상사, 1992.
- 정성임, 「불교의 유입과 중국어 어휘의 변화」, 『중국인문학회정기학술대회논문집』, 중국인문학회, 2004.
- 홍정식, 『반야심경/금강경/법화경/유마경』, 동서문화사, 2016.

- 康寔镇外三人, 『中韩辞典』,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5.
- 刘志贤, 黄冬有, 吴年生, 『佛教趣闻』, 华文出版社, 2006.
- 李明权, 『佛学典故汇释』, 浙江古典出版社, 1990.
- 李明龙, 『虚云老和尚十难十八奇』,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4.
- 李正觉, 『佛教百科全书』, 陕西师范大学出版社, 2007.
- 方立天, 『中国佛教与传统文化』, 长出版社, 2007.
- 孙维张, 『佛源语词典』, 语文出版社, 2007.
- 杨 柳, 『说文解字』, 华侨出版社, 2011.
- 王 寅, 『语义理论与语言教学』, 上海外语教育出版社, 2014.
- 朱京之, 「论佛教对古代汉语社会发展演变的影响」, 『中国研究』, 中国研究所, 2002.
- 朱瑞玫, 『佛学成语』, 汉语大词典出版社, 2006.
-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 商务印书馆, 2012.
- 夏征农, 『辞海语词分册(上·中·下)』, 上海辞书出版社, 2010.
- CCL 语料库 : <http://ccl.pku.edu.cn/corpus.asp>
- 国家语委现代汉语语料库 : <http://corpus.zhonghuayuwen.org/>

❖ ABSTRACT

A Study on Chinese Terms Related to ‘佛’ and ‘魔’,
and Buddhist Culture

Kim, Soonjin
Dongguk University

Han, Yongsu
Dongguk University

When Buddhism was introduced in China, Buddhist Scriptures were translated by Chinese people from Sanskrit into Chinese. In this process, many new Buddhist terms began to be secularized and used in daily life. This was a fusion of Indian Sanskrit and Chinese, where the Buddhist cultures of India and China were combined to produce a unique Chinese Buddhist culture. The mutual exchange of vocabularies and culture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greatly influenced the current Buddhist vocabulary in China.

Through the analysis of meanings in Chinese and Buddhism of terms related to 佛 and 魔, this study determined that those terms contain abundant Buddhist culture and deep teachings of Buddhism, and, in a reverse way, that those words and Buddhist culture and teachings make abundant the vocabulary contents and improve the effects of the expression. Further, this kind of analysis is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origin development processes of such terms as well as the Buddhist culture contained in those words. Through corpus-based analysis, this study calculated the frequencies of use in ancient and modern Chinese societies, and suggested reasons for the differences in the two societies regarding words related to 佛 and 魔. In addition, through linked word analysis, this study found the words that are most frequently used by the public, which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customs and the thinking methods of the Chinese.

Key Words : 佛, 魔, Chinese vocabulary, Buddhist culture, corpus, linked
word analysis

■ 논문접수일 : 2019. 08. 10

■ 심사완료일 : 2019. 09. 01

■ 게재확정일 : 2019. 09. 03